

## 제2장 교회의 교도권에서 본 전례와 대중 신심

60. 대중 신심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들과 주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sup>56)</sup>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대중 신심에 대한 공통된 교리적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고 사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대중 신심의 가치

61. 교도권에 따르면 대중 신심은 교회 안의, 그리고 교회의 살아 있는 실체이다. 대중 신심의 원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대중 신심의 준거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대중 신심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이며, 대중 신심의 역사적 중요성은 “복음화와 문화 활동의 기쁜 만남이다.”<sup>57)</sup> 교도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중 신심과 그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었고, 대중 신심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견책하였으며, 대중 신심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며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sup>58)</sup> 실제로 교도권은 대중 신심을 “하느님 백

56. 본문 2항 참조.

57. 요한 바오로 2세, ‘자포광’의 동정 마리아 순례지에서 한 강론, 2항, AAS 71(1979), 228면.

58. 「마리아 공경」, 31항;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바실리

성의 참된 보화”<sup>59)</sup>로 본다.

교도권이 대중 신심을 존중하는 이유는 주로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들 때문이다.

대중 신심은 거룩한 것과 초월적인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하느님의 자비와<sup>60)</sup> “하느님의 부성, 섭리, 사랑, 현존 등 하느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리한 감수성”<sup>61)</sup>을 드러낸다.

교도권의 문서들은 특별히 대중 신심과 조화를 이루며 대중 신심이 증진하고 길러 주는 일부 내적인 자세와 덕목들을 강조한다. 곧 인내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감수하는 자세”,<sup>62)</sup>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자세, 고통을 참으며 “일상생활에서 십자가의 의미”<sup>63)</sup>를 감지하는 능력, 하느님께 지은 죄를 보속하고 참회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갈망, 물질적인 것에 대한 초연함,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자세, “우애와 사랑, 가족의 일치에 대한 의식”<sup>64)</sup> 등이 그것이다.

62. 대중 신심은 인간을 사랑하신 까닭에 연약한 작은 아기가 되어 소박하고 비천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드

카타와 아폴리아 주교들에게 한 훈화, 4항, AAS 74(1982), 211-213면 참조.

59. 요한 바오로 2세, 칠레 라세레나의 말씀 전례 때 한 강론, 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1(1987), 1078면.

60. 「현대의 교리교육」, 54항 참조.

61.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62. 「푸에블라 문헌」, 913.

63.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64. 「푸에블라 문헌」, 913.

님에게 곧장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또한 대중 신심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신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sup>65)</sup>

내세의 신비에 대한 관상은, 하늘의 성인들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나누는 친교에 대한 열망과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한 전구와 마찬가지로 대중 신심의 중요한 특징이다.

**63.** 교도권이 대중 신심을 존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중 신심에서 흔히 발견되는 복음 메시지와 개별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 때문이다. 참된 형태의 대중 신심에서, 복음 메시지는 해당 문화에 고유하고 의미 심장한 표현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복음의 내용과 생명과 죽음, 인간의 자유와 사명, 운명에 대한 복음의 사상을 그 문화의 의식에 붙여넣는다.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세세대대로 이러한 문화 유산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원칙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에 이러한 융합이 매우 깊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한 요소들이 개별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sup>66)</sup>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심은 이에 대한 예가 될 것이다.

**64.** 교도권은 또한 하느님 백성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의 노력을 고무할 때에도 대중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부 지역에서 신자들이 열심히 순수한 지향으로 실천하고 있는 신심들<sup>67)</sup>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참다운 대중 신심은 “본

65. 「푸에블라 문헌」, 912 참조.

66. 요한 바오로 2세, ‘자포광’의 동정 마리아 순례지에서 한 강론, 2항, AAS 71(1979), 228-229면; 「푸에블라 문헌」, 283 참조.

67. 「현대의 교리교육」, 54항.

질적으로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분파들에 대한 대응책이 되며 구원의 메시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sup>68)</sup>해 준다. 이러한 대중 신심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보존하는 접리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복음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대중 신심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표현한다.”<sup>69)</sup> 대중 신심은 “사람들의 신앙을 심화하고 성숙하게 하는 출발점<sup>70)</sup>”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 빛나간 대중 신심

**65.** 교도권은 부인할 수 없는 대중 신심의 가치들을 강조하는 한편, 대중 신심에 해로운 위험 요소들도 주저 없이 지적한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니는 구원의 의미나 교회에 대한 소속감, 성령의 위격이나 활동과 같은 그리스도교적 요소들의 결여, 성인들에 대한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권이나 그분의 신비에 대한 관심 사이의 불균형, 성서를 가까이하지 않음, 교회의 성사 생활에서 멀어짐, 예배와 그리스도교 생활의 의무를 분리, 대중 신심의 일부 표현들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관점, “때로는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과장된 표지와 몸짓, 기도문<sup>71)</sup>의 사용, 특정한 경우에 “분파나 미신, 주술, 운명론, 억압을 조장<sup>72)</sup>할 위험 등이 그것이다.

68. 요한 바오로 2세, 제4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개막 연설, 산토도밍고, 1992. 10. 12., 1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V/2,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4, 323면.

69. 「푸에블라 문헌」, 913.

70. 같은 곳, 960.

71.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아브루지와 몰리세의 주교들에게 한 훈화, 3항, AAS 78(1986), 1140면.

72. 요한 바오로 2세, 콜롬비아 포파얀에서 한 강연,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X/2(1986),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6, 115면.

66. 오늘날의 교도권은 대중 신심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대중 신심을 “복음화해야”<sup>73)</sup>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대중 신심을 복음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복음은 “대중 신심의 약점을 점차 제거할 것이다. 곧 복음은 대중 신심을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정화하고 강화하며 모호한 면을 분명히 한다.”<sup>74)</sup>

사목적 견지에서 권고되듯이 대중 신심을 ‘복음화하는’ 일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거룩한 전례의 토착화와 관련된 문제들,<sup>75)</sup> 그리고 대중 신심에 내재한 문제들에서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채택한 방법에 따라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대중 신심의 주체

67. 교회의 교도권은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sup>76)</sup>는 것을 유념하며, 그리스도의 성령께 감동되어 혼자서 기도드릴 때나, 서로 다른 기원과 유형의 단체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드릴 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 주체는 성직

73. 「25주년」, 18항;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아브루지와 몰리세의 주교들에게 한 훈화, 6항, AAS 78(1986), 1142면; 「푸에블라 문헌」, 458-459; 교황청 경신성사성, 회람 *Orientamenti e Proposte per la Celebrazione dell' Anno Mariano*, 1987, 43, 68항 참조.

74.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아브루지와 몰리세의 주교들에게 한 훈화, 6항, AAS 78(1986), 1142면.

75. 교황청 경신성사성, 전례 현장(37-40항)의 올바른 적응을 위한 훈령 *Varietates Legitimae*, 9-20항 참조.

76. 전례 현장, 12항.

자와 수도자와 평신도 등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친다.<sup>77)</sup>

6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도 대중 신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가정을 ‘집 안에 있는 교회의 지성소’라고 높이 평가하였던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는 이렇게 강조한다. “성당에서 바치는 예배를 준비하고,<sup>78)</sup> 그것을 집에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 기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기도예에 붙여넣는 풍요함이 비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양각색의 필요와 생활 상황을 채우는 데도 쓸모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는 별도로…… 다른 일정한 형태의 기도, 예컨대 하느님 말씀의 봉독과 묵상, 성사 배령의 준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동정 마리아에 대한 각종 공경, 식사 전후의 기도, 대중 신심의 준수 등이 분명히 권장될 것입니다.”<sup>79)</sup>

69. 대중 신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는 신심회와 그 밖의 신자들의 신심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자선 활동과 사회 참여 외에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당신 신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천사와 성인들과 복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예배를 증진한다는 제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전구를 장려한다.

신심회들은 흔히 전례력을 준수하면서, 특별한 축일과 의

77. 교황청 경신성사성, 「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de Liturgia Horarum*), 9항 참조.

78. 전례와 관련하여 「성무일도에 관한 총지침」 27항에 나와 있는 이러한 권고도 주목하여야 한다. 곧 “교회의 집안 성소인 가정에서도…… 기도가 닿는 대로 성무일도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교회에 더욱 밀접히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79. 「가정 공동체」, 61항.

식, 9일 기도, 7일 기도, 3일 기도, 회개의 날, 행렬, 순례, 특별한 자선 활동을 펼치는 날 등이 지정되어 있는 자체의 고유한 달력을 따른다. 이들 단체는 또한 자체의 신심 서적과 메달이나 의상, 띠와 같은 표장과, 자체의 예배 장소와 묘지도 갖고 있다.

교회는 이들 신심회를 인정하고 법인체의 자격을 부여하며<sup>80</sup> 그들의 정관을 승인하고 예배 목적과 활동을 장려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본당과 교구 생활에 분별 있게 동참함으로써 갈등과 고립이 없게 하여야 한다.

## 신심 행위

**70.** 신심 행위는 대중 신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신심 행위는 기원과 내용, 언어와 형식, 관례와 주체 등에서 저마다 매우 다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심 행위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 적극 권장하며,<sup>81</sup> 그것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법적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71.** 신심 행위는 그리스도교 예배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에 비추어, 교회의 교리와 법적 규율, 규범을 분명히 따라야 한다.<sup>82</sup> 또한 신심 행위는 거룩한 전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전례력의 시기를 고려하고, “교회의 기도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sup>83</sup>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72.** 신심 행위는 그리스도교 예배의 일부분이다. 교회는 신심 행위를 통하여 하느님께 합당한 찬미를 드리고, 인간이 그

80. 교회법 제301, 312조 참조.

81. 전례 현장, 13항; 교회 현장, 67항 참조.

82. 전례 현장, 13항 참조.

83. 요한 바오로 2세, 칠레 라세레나의 말씀 전례 때 한 강론, 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1(1987), 1079면.

러한 행위에서 영적 이익을 얻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를 얻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 왔다.

신심 행위에 대한 목자들의 활동은 각양각색이었다. 신심 행위를 권고하고 장려하거나, 지도하고 바로잡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냥 용인하는 목자들도 있었다. 무수한 신심 행위 가운데, 일부 언급해야 할 것은 특히 사도좌에서 정립한 것들과 여러 세기에 걸쳐 사도좌가 권고해 온 것들이다.<sup>84</sup> “주교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관습이나 예식서에 따라 거행되는”<sup>85</sup> 개별 교회의 신심 행위들도 언급하여야 한다. 특정한 수도 가족이나 신심회와 신심 단체들의 개별법이나 전통에 따라, 흔히 교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실천되는 신심 행위들과,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실천하는 신심 행위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자 공동체에서 발전되어 교도권의 승인을 받은<sup>86</sup> 일부 신심 행위들에도 대사의 특권이 주어진다.<sup>87</sup>

## 전례와 신심 행위

**73.** 전례와 신심 행위의 관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신심 행위보다 훨씬 뛰어나다.<sup>88</sup> 따라서 사목 활동은 언제나 “신심 행위보다 뛰어난 지위에 있는”<sup>89</sup> 거룩한 전례를 따라야 한다. 전례와

84. 전례 현장, 13항 참조.

85. 같은 곳, 13항.

86. 교회법 제23조 참조.

87.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um Normae et Concessionum*),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Aliae Concessionum*), 54항.

88. 전례 현장, 7항 참조.

89. 교황청 경신성서성, *Orientamenti e Proposte per la Celebrazione dell' Anno Mariano*, 54항 참조.

신심 행위는 가치의 위계와 이 두 가지 예배 표현의 고유한 본질에 맞게 공존하여야 한다.<sup>90)</sup>

74. 이러한 원칙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심 행위들과 전례의 주기와 요구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심을 혼합”<sup>91)</sup>시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전례와 신심 행위가 혼합되거나 혼동된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교회의 정신과는 다르게 신심 행위가 사라짐으로써 신자들에게 채워지지 않은 공백을 남겨 큰 해를 입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sup>92)</sup>

### 신심 행위의 쇄신을 위한 일반 원칙들

75. 사도좌는 신심 행위의 쇄신을 이룰 수 있는 신학적 사목적 역사적 문학적 원칙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왔다.<sup>93)</sup> 사도좌는 또한 이러한 원칙들이 성서와 전례 정신뿐 아니라 교회 일치와 정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왔다. 성좌가 세운 기준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신심 행위의 본질적 핵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현대의 영성을 반영한다. 신심 행위는 또한 건전한 인간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대중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 요소들을 간직하면서도 대중 신심을 받아들이는 각 민족의 문화와 표현 방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90. 「마리아 공경」, 31, 48항 참조.

91. 이탈리아 주교회의 전례주교위원회, 사목 공지 *Il Rinnovamento Liturgico in Italia*, 1983. 9. 23., 18항, in *Enchiridion CEI*, 3, Bologna: Edizioni Dehoniane, 1986, 886면.

92. 「마리아 공경」, 31항; 「푸에블라 문헌」, 915 참조.

93. 교황청 주교성, *Directorium de Pastoralis Ministerio Episcoporum*, 91항; 「마리아 공경」, 24-38항 참조.

## 제3장 대중 신심의 진단과 쇄신을 위한 신학적 원칙들

### 예배 생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맺는 친교

76. 역사나 계시에서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와 더 없는 자유 안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계시된다.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고 실현되게 하는 모든 복잡한 사건과 말은<sup>94)</sup> 하느님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형태를 띤다. 하느님께서 주도하시고, 인간은 신앙 안에서 귀 기울이며 “믿고 복종하는”(로마 16, 26) 자세가 요구된다.

하느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은(출애 19—24장 참조) 이러한 구원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하느님의 선민을 그분의 ‘소유’이며,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 거룩한 백성”(출애 19, 6)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계약에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본받고(레위 11, 44-45; 19, 2 참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영감과 힘을 얻는다.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도는 하느님의 위업(mirabilia Dei)이나

9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2항 참조.